

제 목	국 문	우리 나라 산업보건사업의 비용분석		
	영 문	Cost analysis of Korean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저 자 및 소 속	국 문	김선민, 김창엽, 조수현*, 신영수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예방의학교실*		
	영 문	Sun-Mean Kim, Chang-Yup Kim, Soo-Hun Cho*, Youngsoo Shin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분 야	보건관리	발 표 자	김선민	
발표 형식	구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0),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p>1. 연구 목적</p> <p>의료보장체계가 확립되어 감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국민의료비의 추계는 이러한 수요 파악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통계가 되어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80년대 말 노동운동이 대두되고 직업성질환의 대형재난이 잇따르면서 산업보건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다. 그 한 예로 1990년 산재예방기금이 설치되어 운용되고 그를 즈음하여 여러 가지 산업보건관련 제도가 입법화되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산업보건서비스에 투입되는 재화의 규모에 대한 연구가 없어 국제간 비교는 물론이러니와 시계열적인 비교도 되지 않고 있다. 이에 연구자 등은 우리나라에서 산업보건과 관련된 비용을 국가 세입세출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업보건사업 비용으로 나누어 추계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산업보건 비용을 추계하고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고자 하였다.</p> <p>2. 연구 방법</p> <p>산업보건관련 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가와 기업주가 운용하는 금액을 분리하여 비용을 추계하였다. 국가가 부담하는 운용하는 비용으로는 크게 산재보험급여와 진폐기금, 산재예방기금이 있고 기업주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에는 작업환경측정비,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비, 보건관리대행비, 보건관리자 선임비용이 있다. 산재보험급여중 산업보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요양급여만을 포함시켰고, 진폐기금에서는 진폐예방사업비, 건강진단 및 부대비를 포함시켰고 산재예방기금 중에는 산업안전공단출연금과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비, 산재예방사업비를 포함시켰다. 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 보건관리대행을 위하여 기업주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은 매년 실시 건수와 비용을 곱하여 추계하였다. 자료원으로는 노동통계연감, 노동부세입세출결산보고서, 노동부의 건강진단실시결과표, 한국통계연감 등을 사용하였다.</p>				

3. 연구결과

1994년을 기준으로 할 때 산재보험급여 중 요양급여 249,185,675 천원, 진폐기금 중 진폐예방사업비 95,170 천원, 건강진단비 669,605 천원, 건강진단부대비 398,863 천원을 산업보건관련비용으로 포함시켰다. 산재예방기금 중에는 산업안전공단출연금 47,386,644 천원, 산재예방시설자금융자비 41,199,987 천원, 산재예방사업비 3,981,356 천원을 포함시켜 정부가 운용하는 금액이 총 346,403,392 천원으로 추계되었다.

사업주가 직접 부담하는 사업비는 일반건강진단비용으로 52,291,380 천원, 특수건강진단비용으로 25,705,800 천원, 작업환경측정비용으로 11,422,250 천원, 보건관리대행비용으로 13,440,067 천원, 보건관리자 선임비용으로는 총 2,356,250 천원으로 총 93,793,497 천원으로 추계되었다.

따라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440,196,889 천원을 산업보건관련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추계되었고 이는 1994년도 경상 국민 총생산액의 0.145 %에 해당하는 비용이며 상시 근로자 일인당 22,157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GNP 대비 비율은 시계열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1992년에 급증하였다가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고찰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전체 국민 의료비가 5.1 %로 추계되고 있는 현실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산업보건관련비용으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많은 분율을 차지하는 것이 산재급여로서 예방적인 사업에는 많은 비용이 투자되지 않고 있었다. 산업보건관련 비용이 계속 증가하지만 1992년을 기점으로 다시 감소하였고 그 증가폭이 국민 의료비의 증가폭에 비하여 크게 저조한 점등을 종합할 때 산업보건관련 예산이 적절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편 사회적인 압력에 좌우됨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노동부 등이 제시한 이차자료를 이용하였으나 실제 비용은 이와 다를 것으로 정확한 추계를 위한 기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보건사업은 다른 의료분야에 비하여 국가가 적극 개입하는 공공의료의 성격을 강하게 가져야 하는 점등을 감안할 때 기획의 한 단계로서 관련 비용에 대한 사전의 예측과 이에 따른 적절한 재원 분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